

범인 말고 아무 것도 못 밝히고 수사 마무리

리뷰 2018 이 사건

<4> 강진여고생 살인사건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 6월 중순께 발생한 강진 여고생 살인 사건은 용의자가 피해 학생 아버지의 친구로 드러나면서 전국민에게 충격을 줬다. 사건 발생 후 살인 용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바람에 사건은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게 됐다.

지난 6월16일 오후 2시께 강진군에 사는 이모(16·고교 1년)양이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두절됐다. 가족은 이양이 귀가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17일 새벽 0시 30분께 경찰에 실종 신고했다.

경찰조사결과, 이양은 16일 집을 나서기 전 SNS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친구에게 "아버지 친구 김모(51) 아저씨가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준다고 해 해남으로 가고

미진한 초동수사...실종 9일만에 시신 발견 증거 확보 실패
아버지 친구, 살해 용의자 자살로 동기·사인 등 미궁속으로

있다"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파악됐다. 실종 하루 전인 지난 15일 오후에도 친구에게 메시지로 "내일 아르바이트 간다. 메시지를 잘 보고 있어라. 위험하면 신고 해달라. 다만 아르바이트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 달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경찰은 아버지 친구인 김씨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김씨는 6월 17일 오전 6시 20분께 자신의 집 인근에 있는 한 철도공사 현장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전날 오후 김씨 자택 CC-TV에는 김씨가 귀가한 뒤 무엇인가를 태우는 모습과 밤에 이양의 부모가 찾아오자 뒷문으로 빠져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수사에 난항을 겪던 경찰은 실종신고 접

수 9일 만인 같은달 24일 오후 2시50분께 강진군 도암면 지석리 소재 매봉산 정상 인근 해발 200m 지점에서 이양으로 추정되는 시체를 찾아냈다. 이곳은 살인 용의자 김씨가 어린 시절을 보낸 마을이다. 시신의 옷은 모두 벗겨져 있었으며, 머리칼락이 모두 잘린 다소 충격적인 모습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시신은 이양으로 최종 확인됐고 김씨의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낫에서 이양의 유전자 검출됐다. 하지만 이양의 시신은 골절 등 뚜렷한 외상 등이 없어 사인(死因)을 단정하지 못했다.

정밀 부검 결과, 이양의 체내에서 수면유도제 0.093mg이 검출됐다. 이 수면제는 김씨가 이양을 만나기 이틀 전 구매한 수면유

도제와 동일한 성분으로 밝혀졌다. 또 김씨가 집에서 태운 물건은 이양이 실종 당일 착용한 바지와 손가방으로 확인됐다. 김씨의 집 다용도실에서 발견된 전기이발기에서도 이양의 DNA가 나오며 경찰은 김씨를 이양 살인 피의자로 확정했다.

하지만, 경찰은 가장 중요한 이양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숨졌는지 등 사인(死因)과 범행 동기, 행적 등은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대대적인 인력을 투입하고도 실종 9일 만에 시신을 발견하며 부패가 심한 탓에 성별죄 여부 등 이양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줄 만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도 실패했다.

결국 이양 살해 사건은 의문 투성이인 채로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됐다. 현재 이양의 가족은 집 등을 모두 처분하고 강진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강진·남철희 기자 chou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9 달뜨기 20:19
해질 17:26 달짐 09:46

메리 크리스마스

늦은 오후부터 서해 일부와 내륙에 눈 또는 비 오는 곳 있었다.

광주	구름많음	-4/8	보성	구름많음	-6/7
목포	구름많음	-2/5	순천	구름많음	-3/9
여수	구름많음	0/7	영광	구름많음	-5/5
나주	구름많음	-6/7	진도	구름많음	-2/6
완도	구름많음	-1/8	전주	구름많음	-4/6
구례	구름많음	-7/7	군산	구름많음	-4/5
강진	구름많음	-4/8	남원	구름많음	-7/6
해남	구름많음	-5/6	흑산도	구름많음	3/7
장성	구름많음	-6/6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0	남서~서	0.5~1.0
	먼바다	북서~북	0.5~1.5	남서~서	0.5~1.5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1.0
	먼바다(동)	북~북동	1.0~1.5	북~북동	1.0~1.5
	먼바다(서)	북~북동	0.5~1.5	북~북동	0.5~1.5

◇물때

목표	간조		만조	
	08:53	21:34	03:36	16:24
여수	04:27	17:06	11:04	23:11

◇주간 날씨

26(수)	27(목)	28(금)	29(토)	30(일)	31(월)	1/1(화)
☁	☁	☁	☀	☀	☀	☀
2/7	-4/0	-5/-1	-5/1	-4/2	-3/3	-3/3

◇생활지수

☀	매우 높음
☁	높음
☁	매우 높음
☀	보통



5·18광장 불 밝힌 성탄 트리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설치됐다. 24일 시민들이 오색으로 빛나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둘러보며 성탄절을 기념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사이버도박 6개월 특별단속

운영조직은 '조폭' 간주

경찰청은 "내년 1월2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간 모든 사이버수사관을 동원해 불법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도박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총책·관리책·통장 모집책·인출책 등에 대해서는 수사 초반부터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주로 폭력조직에 적용되는 조항이다.

도박 프로그램 개발·유지·보수에 가담한 프로그래머, 스포츠도박 중계사이트 운영자 등은 공범으로, 도박 프로그램을 유통하거나 도박사이트 서버임을 알면서 서버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등은 가담 정도에 따라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입건할 방침이다.

불법 도박사이트 수입이 음란물 등 불법 콘텐츠 제공 사이트 수입원이나 조폭 자금원 등으로 활용된 사례가 있는 만큼 기소 전 몰수보전을 적극 신청, 피의자들이 자산을 임의 처분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 사이트 운영자와 거래내역 등이 확인되면 국제청에 즉시 통보해 제금 징수를 지원한다.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행위자는 형사입건을 원칙으로 하되, 조폭·소액 피의자이거나 청소년인 경우 형사입건 대신 즉결심판에 넘겨 전과자 양상을 방지한다.

경찰 관계자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이버도박에 대해 강력한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각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전담수사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초교 대부분 1월 방학과 함께 졸업식

광주지역 대다수 초등학교 졸업식이 예년과 달리 1월 초에 열린다. 이미 교육 과정을 끝낸 초 6학년생들이 2월 초 졸업식을 앞두고 5-6일간 다시 등교하는 시스템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2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초등학교 154곳 중 대부분이 2019년 1월 초 방학식과 함께 졸업식을 한다. 가장 빠른 곳은 효천초등학교로 내년 1월2일 졸업식을 진행한다. 나머지 대

수 초등학교는 1월4일이나 8일에 졸업식을 치른다. 1월 초 졸업식은 교육과정 편성과 학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학년에 처음 도입됐다.

1월 초에 졸업식을 하게되면 3월 초 중학교 입학 전까지 2개월 동안 학생들이 자기계발을 할 수 있다는 게 교육당국의 설명이다. 매년 중학교 배정은 2월 초 발표된다. 광주지역 일부 중학교와 특성화고도 내년 1월 초에 졸업식을 진행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 서구 유치원·어린이집 302곳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31일부터...적발 과태료 10만원

광주시 서구가 아동의 건강보호를 위해 오는 31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24일 서구에 따르면 서구 내 유치원 58곳과 어린이집 244곳 일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달 31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구는 금연구역 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상가 등을 방문해 안내하는 등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서구는 앞으로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금연 지도 단속을 병행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방문해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세부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 사전 안내와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아이들이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 확대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영 기자 young@kwangju.co.kr

군복무중 '과중한 업무 인한 자살' 보훈대상 인정

군 복무 중 자살한 장병에 대해 '과중한 업무'가 원인이었다고 판정되면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된다.

국가보훈처는 24일 "의무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보훈대상자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군 복무 중 자살한 의무복무자와 관련, 과중한 업무가 그 원인이었다면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

도록 했다. 그동안 구타·폭언, 가족 행위로 목숨을 끊는 경우에만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됐던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또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은 등록대상 유족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했다.

보훈처는 "현재는 (법정 유족 순위에 따른) 선순위 유족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면서 "이번에 선순위가 아닌 유족도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보다 빨리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062) 655-6544

062) 362-3336

✓ 뽁뽁~ 울리지 않는 보청기

산수오거리지점

돌고개지점